

## <목주잡가>의 창작 배경과 작품 세계

윤정화\*

###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목주잡가>의 구성방식과 연시조<br>적 성격 |
| II. <목주잡가>의 창작 배경  | V. 맺음말                        |
| III. <목주잡가>의 작품 세계 |                               |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이제 황윤석의 연시조 작품인 <목주잡가>의 창작배경을 18세기 후반 향촌사대부로서의 위치와 당대의 정치·사회적 여건과 관련하여 고찰하고,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의 전반적인 성격과 작가의 의식세계를 논의하였다. 또 <목주잡가>의 구성방식을 고찰하여 연시조로서의 성격을 검토해 보았다.

황윤석 가문의 호남 정착과 생애를 통해 볼 때, <목주잡가>는 그의 관직생활과 그를 둘러싼 가문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작품은 그가 수령직인 목천현감에 부임한 시기에 지은 것으로, 처음으로 한 고을을 맡아 다스리게 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 부산가톨릭대학교 강사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창작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고 삶의 자세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갖기 위해 <목주잡가>를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목주잡가>의 작품세계를 고찰한 결과, 황윤석은 군은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지, 목친현감 제수에 대한 감격과 기대감을 표출하고, 현실정치 상황에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조들이 호남에 정착하게 된 배경과 가문의 빛나는 내력을 제시하고 후손들이 선조의 유훈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문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정체성 회복과 함께 이제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또 성리학적 이념과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자신이 일생동안 매진하고 탐구했던 성리학적 세계관과 심성 수양의 자세에 대해 언급한 뒤 인성론에 바탕을 둔 실천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었다.

<목주잡가>의 시상 전개에서 일정한 구성 방식이나 원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황윤석 개인에서 출발하여 가족이나 가문으로 시상이 확대되는 방식을 기본 패턴으로 삼고, 이 방식은 세 가지 중심 내용이 전개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황윤석은 연시조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연시조의 형식보다 작품에 담을 내용과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황윤석, 목주잡가, 향촌사대부, 가문의식, 성리학적 세계관

## I. 머리말

18세기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실학자이자 성리학자였던 이재 황윤석의 『頤齋亂稿』가 탈초됨에 따라 최근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잇따른 성과와 업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sup>1)</sup> 『頤齋亂稿』는 방대한 분량과 함께 그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 이재가 관심을 가졌던 실학·과학·국어학 등 학문적 분야는 물론 18세기 후반의 정치·경제·문화사에 관해서도 새로운 조명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재는 산문·한시·시조 한역 등 폭넓은 창작 활동에 임했지만, 그의 문학에 대해서는 학계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sup>2)</sup> 산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고, 한시·시조·시조 한역에 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문학에 비해 이재의 학문적 업적이나 성과가 더 컸기 때문이다.

황윤석이 창작한 <목주잡가>도 그의 다른 문학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학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 작품은 자전적 성격이 강하여 황윤석의 생애는 물론 정치에 대한 관심 및 학문적 성향 등이 자세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 그의 삶과 의식세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목주잡가>에 대해서는 초기 연구로서 그의 생

- 
- 1) 최근의 연구 성과 가운데 단행본으로는 최삼룡·윤원호 외, 『이재 황윤석-영·정시대의 호남실학』(민음사, 1994), 강신항·이종목 외,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지식인의 생활사』(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이재연구소편, 『頤齋 黃胤錫의 학문과 사상』(경인문화사, 2009)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 2) 이재의 문학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유재영, 「이재 황윤석의 목주잡가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제7집(한국언어문학회, 1970)  
\_\_\_\_\_, 「이재의 打魚賦에 대한 고찰」, 『향토문화연구』 제5집, (원광대 향토문화연구소, 1989)  
최강현, 「황윤석론」, 『속·고시조작가론』(한국시조학회편, 백산출판사, 1990)  
최삼룡, 「이재 황윤석의 문학 연구」, 『이재 황윤석-영·정시대의 호남실학』(민음사, 1994)  
김명순, 「황윤석의 시조 한역의 성격과 의미」, 『동방한문학』 제13집(동방한문학회, 1997)  
손찬식, 「이재 황윤석의 시조한역의 성격과 의미」, 『어문연구』 제30집(어문연구학회, 1998)  
전재강, 「황윤석 시조의 교술적 성격과 작가의식」, 『시조학논총』(한국시조학회, 2003)

애를 다루면서 작가론적인 접근을 시도한 논의<sup>3)</sup>와, 18세기 향촌사대부 작가의 연시조를 파악하는 가운데 이재의 <목주잡가>를 고찰한 연구<sup>4)</sup>가 있을 뿐 <목주잡가>만을 대상으로 다룬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논의<sup>5)</sup>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작품은 18세기 다른 향촌사대부의 연시조와 비교해 볼 때 내용이나 작가의 지향세계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재 황윤석은 정치적 여건이나 사회·경제적 토대로 볼 때 18세기 후반 서울의 경화사족과 구별되는 전형적인 향촌사대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大科에 응시하고 관료생활 중에도 더 높은 지위에서 현실정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갈망하였다. 또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미한 시골출신으로서 그 욕구를 쉽게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부단한 관심과 노력으로 뛰어난 실학자가 되었다. 즉 그는 현실적 여건이나 상황으로 볼 때 호남의 중소재지사족의 범주에 속하지만, 정치·문화적으로 소외된 지방에서 자신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주어진 현실에서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자 했던 보편적인 향촌사대부들과는 삶의 대응방식이나 지향세계가 달랐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재의 이러한 면모가 작품에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목주잡가>의 창작 배경을 이재 당대의 정치·사회적 여건과 관련하여 밝혀 보고,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에 드러난 이재의 의식세계나 가치관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목주잡가>의 구성방식을 통해 연시조로서의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 이재의 연시조 <목주잡가>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이재의 다른 문학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

3) 유재영, 위의 논문, 최강현, 위의 논문, 최삼룡, 위의 논문.

4) 남정희, 「18세기 京華士族의 시조 향유와 창작 양상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박사 논문, 2002)

5) 전재강, 앞의 논문.

리라 기대한다.

## II. <목주잡가>의 창작 배경

18세기에 굳어진 경화사족과 향촌사대부의 삶은 정치·문화·경제적으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는 과거를 통한 정계진출을 간절히 염원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벼슬을 구하고 은일로 나간 관직생활에서도 더 높은 위치에서의 정치 참여를 원했고 그 통로를 분주히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던 목천 현감 직책을 제수 받아 부임 중에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목주잡가>는 이재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황윤석의 생애가 중심이 되겠지만 특히 호남사족으로서의 정치·경제적 토대와 정계진출의 과정 및 관직생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 작품의 창작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재 황윤석은 전라도 興德 龜壽洞에서 생존했는데, 원래 그의 선조인 평해 황씨는 춘천에 사회·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8대조 황수평(黃守平)이 을사사화 이후 전라도에 입향하여 흥덕에 살게 되었다.<sup>6)</sup> 당시 그의 가문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모두 한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황윤석의 가까운 선대나 친척 가운데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거나 중앙의 권문세족과 연줄이 닿아 있지 않았지만 이재 가문이 호남지역에 정착하고 그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으로 칭송받는 명문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고조부 黃宗懋과 종조부 黃載重(1664~1718)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의 부친인 만은공 황전은 천석꾼으로 집안의 경제력이 정점에 도달하여 중소재지지가 되었는데, 이러한 경

6) 노혜경, 「황윤석의 『평해황씨세계』의 편찬 배경과 특징」, 『장서각』22집(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31~36면 참조.

제력을 갖추게 된 것은 고조부 황종혁 때부터였다. 또 황윤석 가문을 호남학계에 크게 드러낸 인물인 종조부 황재중은 기정익과 김창협이 문인으로 학행으로 당세에 이름이 있었다. 황재중이 작고하자 1736년(영조 12) 황재중을 향사하는 龜巖祀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황윤석 가문은 鄉賢을 배출하게 되어 호남의 사족 반열에 들게 되었다.<sup>7)</sup>

조부 黃載萬(1664~1716)과 부친 황전(1704~1771)은 모두 학문과 행의로 명성이 자자했으나 출사하지는 못했다. 과거를 통한 정계진출이 가까운 선조나 이재의 당대에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가문의 위상과 경제력은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 부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최선의 방법은 과거를 통한 정계진출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가문의 위상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집안의 경제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재가 과거를 통해 정계 진출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난제가 복합적으로 놓여 있었다. 먼저 지방출신이라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이미 경화사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학자가 과거를 통해 출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이재 부자는 먼저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노론계와 학맥을 잇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 가문은 당색으로 볼 때 노론계였는데, 종조부 구암공 재중이 농암 김창협이 문인 가운데서도 석학으로 인정을 받아 두 가문 사이에 世誼가 있었다.<sup>8)</sup> 18세기는 심성에 대한 학설의 차이에 따라 노론 안에서도 인물성동론을 주장하는 洛論系와 인물성이론을 주장하는 湖論系로 나뉘었다. 이재는 노론계 학자 가운

7) 그러나 이 龜巖祀는 1741년(영조 17)에, 숙종 40년(1714) 이후에 창건한 鄉賢祠와 影堂을 철거하라는 조정의 명령에 따라 훼손되고 말았다. 권오영, 「황윤석의 학문생활과 사상 경향」,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지식인의 생활사』(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73~176면.

8) 이강오, 「頤齋亂稿解題」, 『전라문화논총』(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1992), 143면 참조.

데서도 서울 경기 지역의 낙론계 학자인 김원행과 충청도에 거주하고 있던 호론계 학자 윤봉구 두 사람을 모두 만나 누구를 스승으로 정할지 고민을 하다가 김원행으로 정하게 된다.<sup>9)</sup> 이재가 기본적으로 인물성동론을 지지하는 낙론계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지만 스승을 정할 당시인 20대에는 호론에 대해서도 특별한 거부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결국 황윤석이 노론 김원행 문하로 들어간 이유는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낙론계 노론에 속하는 것이 지방출신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고 과거나 정치적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sup>11)</sup>

또 이재의 정계 진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그가 지방 중에서도 호남 지역의 선비라는 점이다. 당시 호남·호서·영남지방은 정치적으로 소외와 차별을 당하고 있었지만 호남지역에 대한 서울의 편견과 차별은 이재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황윤석이 실제 경향분리 만큼이나 문제로 여겼던 것은 배제되는 지방 선비들 가운데 호남 선비들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었다.<sup>12)</sup> 이 문제는 과거 준비를 위해서나 관직을 맡아 서울을 출입하고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실감하게 된다. 그가 다른 지역 사람, 특히 한양의 관인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호남’에 대한

9) 이강오, 위의 논문, 144~145면. 권오영, 앞의 논문, 186~193면.

10) 실제 그의 교유관계를 보면 당색에 크게 얽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인계 실학자와 소론계학자들과 친밀하게 교류했고 평생 가까웠던 鄭景淳과 徐命膺도 소론, 李家煥은 남인이었다. 하우봉, 「이재 황윤석의 사회사상」, 『이재 황윤석』(민음사, 1994), 15~16면. 그러나 황윤석 자신이 느꼈던 지방이라는 자의식, 호남지역이라는 불리한 조건 때문에 당대 가장 핵심 노론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11) 그러나 황윤석 스스로는 김원행의 문하에서 수학하는 노론 낙론계의 일원이라는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기반이 탄탄하지 않았으며, 노론 낙론계 인사들은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김원행은 황윤석이 몇 차례 과거에 낙방하자 과거를 포기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선아, 「영조대 정국 동향과 호남지식인 황윤석의 학맥과 관료생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3집(역사문화학회, 2010), 250~252면.

12) 배우성, 「18세기 지방 지식인 황윤석과 지방의식」, 『한국사연구』 제7집(한국사연구회, 2006), 36면, 45면 참조.

편견과 차별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이다.<sup>13)</sup>

그는 경향분리의 시대적 추세에 따른 지방민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현실 속에서 간절하게 관직을 원하고 과거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문과급제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황윤석은 31세에 진사복시에 합격하여 수차례 대과에 응시하였으나 실패하고 38세 鄭景淳(1721~1795)의 천거로 莊陵參奉을 제수받아 관직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그의 벼슬은 주로 미관의 한직으로 6품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고 낮은 파직으로 한미한 관직생활도 순조롭지는 못하였다.<sup>14)</sup> 이제는 관직생활을 하면서도 과거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데, 48세까지 과거에 응하였다가 부친이 사망한 뒤 단념하였다. 이것은 이제가 얼마나 과거를 통한 정계진출을 염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 대과 급제는 한미한 지방의 사대부가 이루기에는 너무 요원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는 외직에서 중앙 관서로 옮긴 이후 박학다식한 학문에 대한 명성이 자자했지만 승진의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고 소소한 실수가 파직으로 이어지는 등 관직생활이 순탄치 못했다.<sup>15)</sup>

이런 평탄하지 못한 관직생활은 그가 노론계가 아닌 소론계의 인물인 정경순의 추천에 의해 관직에 등용되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해 황윤석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했고, 자신의 출사를 ‘公論’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 당색에 의한 천거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sup>16)</sup> 그가 기대했던 노론의 정치적 후원은 없었으

13) 황윤석은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당대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당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고, 그 본질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대응책을 세워 나가고자 하였다. 이지양, 「호남선비 황윤석의 본 ‘호남차별’ 문제」, 『동양한문학연구』27집(동양한문학회, 2008), 96면.

14) 38세 은일로 추천을 받아 관계에 진출한 이후 20여 년간 관직생활을 했는데, 그가 역임한 관직을 순서별로 정리해보면 莊陵參奉-義盈庫奉事-宗簿寺直長-司圃署別提-世子嬭衛司嬭贊-司僕寺主簿-東部都事-長陵令-木川縣監-掌樂院主簿-昌陵令-典牲署主簿-全義縣監의 순이다.

15) 이선아, 앞의 논문, 257면, 261~263면 참조.

16) 유영옥, 「능참봉직 수행을 통해 본 이제 황윤석의 사환의식」, 『동양한문학연구』



며 오히려 스승인 김원행을 비롯한 노론측의 곱지 않은 시선과 우려는 그의 관직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그는 벼슬살이한지 만 5년이 되어서야 出六을 하게 되었고, 고향 가까운 곳으로 현감이 되어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하였다.<sup>17)</sup> 그러던 중 51세 때 관직에 나간 지 13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목천현감 수령직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재는 39세(1767) 되던 해인 장릉참봉 시절부터 지인과의 대화에서 수령으로 나갈 방도를 상담하기도 했다. 그가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고자 한 이유에 대해 고향 가까운 고을로 수령으로 나가게 되면 俸祿도 많아 부모 신세를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경제적으로나 거리상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sup>18)</sup>

주지하다시피 황윤석의 <목주잡가>는 이 시기에 창작되었다. 대부분의 시조작가의 경우 정치적 시련이나 좌절을 겪은 뒤 그 때의 감회를 작품으로 표출하여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에 비해 이재는 오히려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지위에 올랐을 때 <목주잡가>를 창작했다. 이것은 그가 관료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자신을 독려하기 위한 마음에서 창작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재를 관직에 추천했던 鄭景淳은 음관으로 벼슬길에 올라 여러 고을을 다스렸는데, 가는 곳마다 치적을 세워 영조가 그의 행정 능력을 인정하여 발탁해서 正卿에 이르게 하였다.<sup>19)</sup> 이처럼 정경순의 경우 과거 급제를 못했어도 여러 고을을 맡아 탁월한 업적을 쌓아 왕의 신임까지 얻었던 것을 볼 때, 이재도 정경순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보았을 수도 있다. 이재 자신도 지방 고을을 맡아 다스리면서 자신의 기량을 펼

---

24집, 61~77면.

17) 노론 별열층의 자제들이 6개월, 혹은 길어야 2년 만에 출륙하는 것을 그는 9품직, 8품직, 7품직을 거쳐 만5년을 지내서야 겨우 할 수 있었다. 이지양, 앞의 논문, 97면.

18) 이강오, 앞의 논문, 183면.

19) 『정조실록』 19년(1795년) 1월 18일 신축조에 실린 정경순의 졸기. 이선아, 앞의 논문, 253면에서 재인용.

쳐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기대나 희망을 품었고, 그것을 작품을 통해 확인하고 다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재의 <목주잡가> 창작은 그의 정계진출과 관직생활 및 그를 둘러싼 가문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재 가문은 호남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으로 칭송받는 명문이었지만 과거를 통한 정계진출의 길이 봉쇄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가문의 위상과 경제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이재는 과거를 통한 정계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하지만 실패하였고, 결국은 일로 관직에 진출하였지만 당대의 중앙에 경화시층증과 인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sup>20)</sup> 그는 능참봉에서 시작하여 지방직과 중앙 관서의 관리를 지냈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못했고, 정치적 국면의 변화에 따라 속절없이 교체되고 허탈하게 파직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목천현감은 전 의현감과 함께 그의 관직생활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에게 목천현감 제수는 처음으로 한 고을을 맡아 다스리게 됨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이런 계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한다.<sup>21)</sup> 즉 정치적으로 중요한

20) 이재가 「문헌비고」 편집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박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의정 김치인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 음관이라는 이유로 일을 시킬 수 없다고 진언하였으며, 영조가 만년에 가서야 황윤석의 재주를 알아보았지만 대개 임금의 뜻은 그가 과거에 오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 듯하다. [「이재선생행장」, 587면. 최삼룡, '이재 황윤석의 문학연구' 「이재 황윤석」(민음사, 1994), 91-2면.에서 재인용]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황윤석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 천거에 의해 정계에 진출한 것이 관직생활 동안 줄곧 그를 따라다녔으며, 이에 대해 황윤석 자신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21) 이재는 목천현감 파직 이후 정계에 대한 미련을 많이 정리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곧바로 고향에 돌아가 은거하였고 이후 몇 번의 천거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목천현감 파직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그 직분에 애착과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기에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고 삶의 자세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갖기 위해 시조 창작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 Ⅲ. <목주잡가>의 작품세계

이재 황윤석의 <목주잡가>는 『頤齋亂藁』本에는 28수가 수록되어 있지만 1942년 이재의 후손들에 의해 편찬된 『頤齋續稿』에는 7수가 빠진 21수가 수록되어 있고 작품의 배열순서도 다소 달라져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목주잡가>를 『頤齋亂藁』에 실린 28수가 아닌 『頤齋續稿』의 21수로 논의하는 경우가 있는데,<sup>22)</sup> 『續稿』의 21수는 후손들이 임의로 일부분을 빼고 순서도 바꾸어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한 것이라 하겠다.<sup>23)</sup> <목주잡가>의 작품세계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8수 전체를 대상으로 논의를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여기서는 <목주잡가>의 작품세계를 검토하여 이 작품의 전반적인 성격과 작가의 의식세계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 1. 목천현감 제수의 감격과 ‘薄畀’의 실상

<목주잡가> 제1수에서 7수까지는 이재가 선왕인 영조와 당시 임금 정조의 은덕에 감사하고 자신의 목천현감 제수에 대한 감회를 중점적으

---

22) 최삼룡, 앞의 논문, 134면.

23) <목주잡가> 28수 가운데 속고에서 빠진 작품은 1, 2, 3, 8, 9, 10, 27장의 8수이다. 1, 2, 3장은 선왕인 영조에 대한 감사와 은덕을 칭송한 것인데, <목주잡가>가 목천현감 재위기간 중에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의 당시 정황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 8장은 집안 형제 걱정, 9장은 자식 걱정, 10장은 죽은 아내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토로한 것으로, 이 세 작품은 이재의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소재로 읊은 것으로 파악하여 배제시킨 것으로 보인다. 27장은 17장, 26장의 내용과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로 읊고 있는데, 작품을 통해 그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닛즈오려 못 닛즈을 쉬인두희 先王功德  
時時와 夜夜로 念念의 눈물이읍  
두어라 우리님 聖明이읍시니 太平萬歲 비읍노라. (2465, 木州雜歌  
28-3)<sup>24)</sup>
- [2] 君恩이 罔極하와 白髮의 木川오니  
그리던 家屬을어 大綱 만나리라  
아마도 四百里風雪의 慈親思念 어려와라. (323, 木州雜歌 28-5, 屬  
稿 21-1)
- [3] 阿爺님 늘 브리고 阿嬈님 내 뵈오려  
三年後 六年만의 薄邑을 엇단말가  
두어라 薄邑일만경 天地君父 恩惠로다. (1836, 木州雜歌 28-6, 屬  
稿 21-2)
- [4] 고흘도 적다 말고 物力도 簞타 말고  
내막음 다 호오면 國恩을 가푸려니  
슬프다 勢업은 微臣이라 뜻과 달나 어이하라. (183, 木州雜歌 28-7,  
屬稿 21-3)

[1]은 영조와 정조의 성은에 감격하여 태평성대와 임금에 대한 송축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먼저 선왕인 영조의 재위기간 52년 동안의 공덕에 대해 칭송을 하고 있다. 중장에서 아무 때나, 매일 밤마다 임금을 그리워 하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애나 사회적 배경을 보아서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이것은 영조가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조가 만년에서야 황윤석의 재주를 알아본

24) 이 작품은 沈載完 編著 『校本歷代時調全書』(세종문화사, 1972)에 수록된 것을 인용하였으며, 괄호 속에 그 번호와 함께 제시하며 『頤齋續稿』에 수록된 순서도 함께 표시하였다.

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영조 47년에 영조를 직접 알현하여 재주 많은 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것을 통해 볼 때, 영조는 이재의 재주나 실력은 인정했지만 지방 출신으로 과거로 통해 입사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5)</sup> 이러한 일화들이 이재의 가슴에는 깊이 남아 있었고 <목주잡가>에서 가장 먼저 영조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쏟아내었던 것이다.<sup>26)</sup> [2]에서도 역시 군은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목천현감을 제수받은 뒤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드러나 있다. 그동안 관직에 매여 서울과 지방을 오가느라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만나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목천과 홍덕간의 거리가 사백 리나 되어 어머니를 현실적으로 모시기 힘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에 나타난 이재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 목천현감 시절에 그는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을 데려와 함께 지내기도 하였고, 8개월 재임기간 중 노모를 4개월간 봉양하였다. 실제적으로 목천현감 재임시절에 그 어느 때보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sup>27)</sup>

[3]에서도 군은에 대한 감사와 어머니에 대한 염려를 담고 있다. 초·중장에서 부친이 1771년(영조 47년)에 사망한 뒤 모친을 자신이 모셔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당시에도 이재는 지극한 효자로 알려져 있었다.<sup>28)</sup> 조선시대의 통념상 부모봉양을 원하는 관리는 공공연히

25) 『願齋先生行狀』, 587면. 최삼룡, 앞의 논문, 92면에서 재인용.

26) 영조가 자신을 알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한시 <伏聞九月七日>, <崇政殿入侍時記事二絶>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27) 이현창, 「18세기 황윤석가의 경제생활」,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지식인의 생활사』(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393~395 참조.

28) 43세 때인 1771년 6월 이재는 청의 수도 연경에 사행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우의정 金相喆이 판서 趙曠에게 문학인재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재를 추천했는데, 이재는 70세 된 양친이 있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이재가 당시 천문 역상과 서양 과학에 관한 학문적 호기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상상한다면, 또 당시 새로운 학문을 선호하던 학자들에게 북경사행이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었던가를 생각한다면 그의 효심은 짐작 가능하다. 이 사건 다음 달인 7월 부친의 병환 소식을 듣고 고향에 다녀오게 되는데 기일을 넘겨 해직을 당하기도 하

수령직을 희망하였다. 이재는 지방의 수령에 부임하면 가족을 보살피고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에도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중장의 3년 후라는 것은 부친의 거상 기간이 지났음을 의미하고, 6년 뒤인 1779년에 ‘薄邑’인 목천을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薄邑’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피폐한 고을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가 목천에 대해서 ‘邑岩吏猾’이라 평가하면서 다스리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면 처음부터 목천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9)</sup> 특히 ‘吏猾’이라 한 것을 보면 목천이 아전들의 무리가 세력을 휘둘러 다스리기 힘들다는 것을 예감했으며 이러한 우려는 결국 자신의 파직 요인으로 이어졌다. 이재는 자신에게 정치적 기회를 준 군은에 감사하였지만, 그런 자신의 감격과 기대와는 달리 현실의 정치상황은 만만한 것이 못 되었던 것 같다.

[4]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작은 고을이고 物力이 군색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집무하면 國恩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이재의 이상과 현실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勢업슨 미신’이 마음에 품은 뜻과 현실정치 상황은 달랐던 것이다. ‘勢力이 없다는 것은 중앙 정계에 뚜렷한 지지기반이 없었던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해 줄 세력이 없었음을 의미하고 그 때문에 소신껏 정사를 돌볼 수 없었던 상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시 다른 지역의 향촌사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남지역 역시 독자적인 당파를 형성하여 중앙정계에서 권력투쟁을 할 만큼 세력이 크지 못했으며, 대개 서울의 어느 權門과 친분이나 학맥이 연결되느냐에 따라 당색이 정해졌던<sup>30)</sup> 상황

였다. 하우봉, 앞의 논문, 20-21면.

29) 『이재난고』권33, 경자년(1780) 6월 20일 정묘조[6책 272쪽], 이선아, 「18세기 후반기 정국동향과 호남 향유 황윤석의 관직임면」, 『전북사학』39집(전북사학회, 2011), 177면에서 재인용.

30) 송준호, 「이조시대의 전라도-그 정치 및 사회적 지위」, 『이조시대의 전라도』(전북대 박물관, 1971)

하에서 이재의 관료생활은 위태로웠을 것이다. 목천현감의 전임이었던 안정복(1712~1791)의 경우도 별다른 치적을 세우지 못했고,<sup>31)</sup> 이재 역시 1779년 10월에 부임하여 이듬해 6월 吏輩가 倉穀을 도적질하여 유용한 것을 알고 차마 법의 절차로써 다스리지는 못해 독촉하여 반납시키려고 하다가 도리어 모함을 당하게 된다. 결국 下吏들의 작폐로 濫稅라는 죄목으로 이듬해 정조4년(1786) 6월 관찰사 沈頤之가 낮은 점수를 주서[下考]로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직당하고 말았던 것이다.<sup>32)</sup>

이상과 같이 황윤석은 군은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선정을 다짐하는 내용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재는 자신을 믿고 한 고을을 맡게 해 준 성은에 보답할 수 있으며, 또 노모를 부양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었다. 이처럼 큰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부임하였지만 현실 정치상황은 만만치가 않았고 관료로서의 한계와 고뇌를 함께 감내해야 했음을 알 수 있었다.<sup>33)</sup>

31) 柳在泳, 「頤齋 黃胤錫의 木州雜歌에 對한 考察」, 『한국언어문학』(한국언어문학회, 1970), 378면.

32) 이때에도 자신을 인정해 주었던 충청도 관찰사 이병정이 축출되고 그 후임인 沈頤之에 의해 파직되었는데, 황윤석의 죄목은 당시로서는 수령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심이지가 야박하게 처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논의도 있다. 노혜경, 『조선후기 수령행정의 실제-황윤석의 『이재난고』를 중심으로』(혜안, 2006), 251-266면 참조.

33) 이재는 57세 되던 해인 정조 10년(1786) 7월에 전의현감에 부임하였으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듬해 4월 암행어사 沈煥之의 논거로 파직되었다. 이재가 전의현감으로 재임할 당시 고을에 흉년이 들자 목민관으로서 백성의 구휼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고을의 항반세력이 트집을 잡아 현감의 총복인 좌수 金斗樞를 모함하여 죽게 하고 이재도 파직을 당하게 하였다. 백원철, 앞의 논문, 294-297. 이처럼 이재는 전의현감 시절에도 목민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지만 항반과의 갈등이 있었고 암행어사가 항반의 편을 전적으로 들면서 파직당하고 말았는데, 이재가 자신의 포부나 신념과는 달리 정치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 2. 선조들의 자취와 遺訓 계승을 통한 가문의식 고양

다음으로 <목주잡가> 8~16수까지는 이재 자신의 가족과 가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8~10수는 이재 당대의 가족만을 염두에 두고 창작한 것인데, 8수는 집안의 형제·누나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홀로 계신 모친을 봉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 9수는 아내가 죽은 뒤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10수는 백발에 소실을 맞은 뒤 죽은 아내에 대해 떠오르는 상념들을 각각 읊고 있다. 11~16수까지는 이재 집안의 선조가 전라도 흥덕에 내려와 좋은 곳에 터를 잡고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였으므로 그러한 선조들의 정신과 유훈을 계속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신이 있기까지 가문의 혁혁함이나 가풍의 위대함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5] 오래다 우리 龜壽洞中 東偏 잿밭이다  
 兪正先祖舊墓읍고 烈女房親旌門 마조  
 眞實노 二百年 追慕호면 孝子孝孫 되오리라. (2072, 木州雜歌 28-12)

[6] 龜壽洞 本宅 西偏 四十里 逍遙山下  
 蓬萊는 几案이오 沙浦 襟帶로다  
 그 中의 우리집 三世遺躅 어이 춤아 니줄소니. (298, 木州雜歌 28-13, 屬稿 21-7)

[7] 文章도 繼繼호샤 行誼도 承承호샤  
 科宦이 굿다흔들 우리 五世 늘 붙을가  
 두어라 明農讀書호여 先子遺訓호여문. (1075, 木州雜歌 28-15, 屬稿 21-9)

[8] 言語도 不可不慎 飲食도 不可不節  
 言語로 文字의 미뤄 보고 飲食으로 財祿의 미뤄 보라  
 넷 聖人 頤卦大象이니 우리先訓 더욱 죠타. (1990, 木州雜歌



28-16, 屬稿 21-10)

[5]는 황윤석 가문이 흥덕에 내려와 자리 잡은 곳을 소개한 뒤 자랑스러운 선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래된 구수동의 동편에는 기술을 이끌고 서울에서 흥덕으로 이주해 온 6대조 僉正 벼슬을 지낸 黃處中の 묘소가 있고, 맞은편에 處中の 형 應中이 요절하자 그의 부인이 따라 죽은 뒤 나라에서 내려준 열녀 旌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훌륭한 선조의 뜻을 따르고 추모한다면 후손들도 능히 효자·효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6]의 초·중장은 귀수동 서쪽 소요산 아래 이제의 종조 귀암공이 지은 누대 鳴玉臺 주변의 경치를 설명하고 있다. 뒤흘에는 소요산이 펼쳐져 있고 봉래산은 안석처럼 놓여 있고 포구인 사포는 금대에 비유한 것처럼 꼬불꼬불 돌아 요해를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종장의 ‘三世遺蹟’에서 ‘三世’는 증조부와 조부, 종조부 龜巖과 부친 晚隱의 삼대가 공부하며 지낸 서당에 전해오는 선조의 자취를 말한다.<sup>34)</sup> 18세기 이후 향촌의 사족들은 양반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문중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문중 서당을 운영하여 가학의 전승에 주력하였다. 18세기 이후 문중서당의 운영은 단정한 언행과 진지한 학문 탐구, 그리고 적절한 과거 공부를 통한 입신양명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sup>35)</sup> 이곳은 선조들이 학문을 탐구하고 반듯한 처신과 올바른 언행을 연마했던 곳이므로 그분들의 자취를 잇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5], [6]에서는 이제 가문의 선조들이 전라도 흥덕 중에서도 풍수적으로 뛰어난 곳을 정하여 자리 잡은 뒤 학행이나 효행 모두 훌륭하게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7]에서는 선조의 유훈을 공경하여 잘 받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문장도 물론이지만 行誼 또한 잘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科宦’ 즉 과거를 통한 벼슬길은 끊어졌지만 우리 가문은 부러울 것이 없다는 자

34) 최강현, 앞의 논문, 405면.

35) 이옥, 「18세기 가학 전승과 문중서당」, 『국학연구』18집(한국국학진흥원, 2011), 149면.

부심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 돌아가신 부친은 농사와 독서에 힘쓰라는 유훈을 남기셨다. 농사와 독서는 향촌 사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재 가문이 현실적 상황에서 반드시 매진해야 했던 과업이었다. 과거를 준비하는 윤석 형제는 열심히 학문에 정진해야 했고, 그 외 가솔들은 농사에 힘써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재 또한 이런 부친의 유훈을 잘 계승해 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8]은 주역의 「大象傳」에서 “산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이 頤卦이니, 군자가 본받아 써서 말을 삼가고 음식을 절제한다.”라는 구절을 가져왔다. 여기서도 선조의 훈계와 당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언행은 삼가고 음식을 절제하라는 것인데, 말은 항상 그 의미를 새겨 보고 음식은 재물에 비취 겸소하게 생활하라고 경계하고 있다.<sup>36)</sup> 이 역시 자신의 언행과 몸가짐을 돌아보고 경계하였던 선조의 훈계를 잊지 말고 계승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재는 선조들이 호남에 정착하게 된 배경과 가문의 빛나는 내력을 제시하고 후손들이 그들의 유훈을 잘 전승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재가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가문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개인적으로 자의식을 회복하고 지역 사회에서 가문의 위상도 정립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성리학적 삶의 자세와 인륜의 실천 당부

다음으로 <목주잡가> 17~20수의 내용은 이재의 성리학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나 있다. 18세기 학계의 쟁점이 되었던 인물성동이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 피력하고 유학자로서의 수양과 자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36) 이재는 부친이 항상 책상 앞에 ‘頤卦’를 붙여놓고 자신을 독려했기에 자신의 호를 ‘頤齋’로 삼았다고 한다.

[9] 虛靈호은 이내 本心 純善호은 이내 本性

本心은 聖凡이 한가지오 本性은 人物이 한가지니

엇디타 本心性汨失하여 至愚極賤 되올소냐. (3230, 木州雜歌  
28-17, 屬稿 21-11)

[10] 믹이 쥐면 ㅂ아지리 아니 쥐면 ㄸ라나리

勿忘勿助 地境의 이내 므음 삼가 슬피

죽도록 蹈虎履氷이오 臨淵隕谷이오리라. (1006, 木州雜歌 28-20,  
屬稿 21-14)

[9]는 인물성동론에 대한 이재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이 작품은 『대학』에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서 虛靈不昧하여”라고 한 구절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本心이란 잡념이 없고 신령에게 통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전제한 뒤 그 本心이 聖人과 凡人, 사람과 동물 모두 한가지라는 것이다. 또 明德은 이른바 本心인데, 그 본체는 스스로 밝아 聖人과 凡人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사람이 누구나 성인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명덕의 본체가 밝은 것이 같다는 데 있다고 하면서 만약 성인과 범인이 스스로 구별이 있다고 하면 범인은 성인을 배울 수 없다고 하였다.<sup>37)</sup> 그렇기에 修德하여 성인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마저도 잃어버리고 ‘至愚極賤’의 지경에까지 처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10]에서는 성리학자로서 심성수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신을 수양함에 있어 항상 조심하고 근신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하게 쥐면 부서지고 그렇다고 손에서 놓아버리면 달아나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이재는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부서질까 달아날까 염려하고 삼가고 있다. ‘勿忘勿助’는 완전히 잊어버리지도 말고 助長하여 생명을 죽이지도 말라는 맹자의 심성수양 방법을 소개하고 있

37) 권오영, 「황윤석의 학문생활과 사상 경향」,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14.

다.<sup>38)</sup> 항상 몸가짐에 신경을 써서 자신을 돌아보되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앞서가지도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호랑이 꼬리를 밟거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하고, 깊은 웅덩이에 임했거나 골짜기에 떨어질 것처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성리학자로서 자신을 수양하는 자세는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근신하는 생활 태도에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재는 자신이 탐구하고 체득한 성리학적 이념과 심성수양에 대해 뚜렷한 가치관과 신념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근신하고 수양하는 삶의 자세로 일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재는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이기도 했지만 經學에 관한 한 朱子로부터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으려 한 철저한 朱子主義者<sup>39)</sup>였다는 사실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1수에서 28수까지는 성리학적 이념과 심성 수양 방법 등을 바탕으로 유교적 가치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앞의 17~20수가 이념적·원론적인 내용에 치우친 것이라면, 여기서는 오류를 비롯하여 구체적·현실적인 덕목들을 다루고 있다. 이 때문에 다분히 교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재의 후손들이 염두에 두고 반드시 실천했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 [11] 君臣은 大義잇고 父子는 至親이며  
 長幼有序의 兄弟들고 朋友有信의 師生드네  
 아마도 夫婦一倫은 五倫之本이라 엇디無別호올소냐.  
 (321, 木州雜歌 28-21, 屬稿 21-15)

- [12] 이내 몸이 天地間의 禽獸와 다르기는

38) 전재강, 앞의 논문, 215면.

39) 하우봉, 「이재 황윤석의 사회사상」, 『이재 황윤석』(민음사, 1994), 32~34면.

倫紀禮節을 제 모르고 이 能히 아롬이니  
엇지타 天地에 參爲三才히여 禽獸同歸호을소냐.

(2281, 木州雜歌 28-25, 屬稿 21-19)

[13] 人才야 前도 後도 彼此同異 언마히리  
야논이 잇스오면 쓰이논이 절노 잇네  
아마도 一代人才는 自了一代事인가 호노라.

(2417, 木州雜歌 28-28, 屬稿 21-21)

[11]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오류를 옳은 것인데, 위정자의 위치에서 백성을 교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창작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문내에서의 유교적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류의 내용을 한 수에 모두 담고, 특히 부부유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이 특징적이다. 부부가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한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2]에서는 조선후기 학계의 쟁점이 되었던 호락논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그에 따른 실천을 호소하고 있다. 앞의 [10]에서 인물성동이론의 이론적 근거를 역설하였다면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적극적으로 인륜의 기강과 예절의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동물과 인간의 性이 같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동물과 식물이 종류가 다르고 발로 차고 물어뜯는 능력이 다른 것은 대개 얻은 바의 氣로 인하여 각각 치우친 바가 있어 性이 이 氣의 상면에 붙어 있는 것도 따라서 다르며, 각각 그 품부 받은 바를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물의 性과 인간의 그것이 다른 것은 氣質 속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40)</sup> 이런 이유에서 人과 物이 本性은 한가지이지만 인간이 금수와 구별되는 것은 인륜의 기강과 예절을 알고 모르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

40) 권오영, 앞의 논문, 207면.

문에 천지간에 위대한 인간이 금수와 같지 않기 위해서는 마땅히 윤리와 예절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는 사람이 ‘禽獸’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淫聲·亂色에 빠지지 말 것과(23수), 자기 몸을 귀하게 할 수 있도록 돌아볼 것을 당부하며(24장),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倫紀禮節’를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이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금수와 다를 바가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목주잡가> 28수의 마지막 작품인 [13]에는 이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人才는 전후에 별반 차이가 없으며, 아는 것이 있으면 저절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은 노력하여 실력을 겸비하면 그것을 알고 써 줄 사람이 있다는 의미이다. 종장의 ‘自了一代事’란 한 시대의 인제는 한 시대의 일을 스스로 끝낸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기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 구실을 다하는 사람을 진정한 인재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시대의 일(一代事)’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목주잡가>를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이재가 느닷없이 언급하고 있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추측하게 한다. 그것은 과거에 급제하여 정치에 기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가 일생동안 관심을 가졌던 실학·성리학 등의 학문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소박하게 주어진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시 이재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과 작품의 창작동기와 관련지어 볼 때 이 세 가지 모두를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닐까 한다. 즉 크게 쓰임을 받느냐의 여부가 인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일생에서 제구실을 다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자신이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여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원했던 수령직을 임명받았고, 학문적으로도 실학과 성리학 모두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였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크게 일탈한 삶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자신의 삶을 시조작품으로 형상화하여 가문의 위상을 정립하고 후손을 독려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이재 황윤석의 <목주잡가>의 작품세계를 주요 내용이나 그의 의식세계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는 군은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선정을 다짐하는 내용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었는데, 목천현감 제수에 따른 감격과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입지나 세력이 크지 않았던 그로서는 현실정치 상황에 고민과 갈등도 함께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선조들이 호남에 정착하게 된 배경과 가문의 빛나는 내력을 제시하고 후손들이 선조의 유훈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문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리학적 이념과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자신이 일생동안 매진하고 탐구했던 성리학적 세계관과 심성수양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이어서 인성론에 바탕을 둔 실천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성리학적 이념들을 제시한 뒤 가족이나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윤리적 덕목들을 쉽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목주잡가> 전체를 놓고 볼 때, 부분적으로 정치적인 고뇌와 번민도 드러나고 있지만 현실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나 반감의식을 표출한 것은 아니며, 관료로서 성은에 보답하고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 후손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삶의 자세와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 IV. <목주잡가>의 구성방식과 연시조적 성격

이재가 남긴 <목주잡가>는 장편의 연시조이면서 자전적인 성격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어 흥미롭다. 이 작품을 통해 이재 일생의 대략적인 면모를 짐작할 수 있고 그의 현실적 상황과 관심사 및 의식세계를 상당 부분 읽어낼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목주잡가>에 나타난 서술방식의 특

성을 살펴보고 이 작품을 18세기 향촌사대부 연시조와 비교하여 이 작품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시조는 진지한 자세로 뚜렷한 창작의식을 가지고 전개된 형식으로 작가의 의도나 지향이 일관되게 드러나며 유기적인 내적 질서를 갖추고 있는데, 이 작품은 내면화된 화자의 정서가 일관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또 이 작품은 전체의 내용면에서 연시조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었던 단순히 단형시조의 군집이 아닌 의미 있는 연결체로서의 집합적인 성격<sup>41)</sup>이 부족한 편인데, 사실이나 교훈을 바탕으로 한 몇 가지 내용들이 교시적인 어조로 제시되어 있어 작품 전체의 통일성이나 긴밀성도 약하다. 이제가 이 작품의 제목을 ‘~雜歌’라 명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짐작이 된다. 이 때문에 <목주잡가>는 구성의 긴밀성이 떨어지고 유가적인 덕목을 드러내고 있어서 조화로운 자연을 매개로 하여 질서 있는 세계인식을 드러내지 못했다거나,<sup>42)</sup> 작가가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나 당시 보편화된 유교 사상과 이념, 유교 덕목을 교훈을 내리는 내용을 작품의 중심내용으로 표현함으로써 교술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sup>43)</sup>는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품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 제시된 양상을 살펴보면 <목주잡가>의 시상 전개에서 일정한 구성 방식이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목주잡가>는 이제 개인에서 출발하여 가족이나 가문으로 시상이 확대되는 방식을 기본 패턴으로 삼고, 이 방식이 중심적인 세 가지 내용이 전개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신의 감회나 현재 상황,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신념이나 실천의지 등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뒤 여기서 나아가 가족이나 가문으로 의식을 확장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목천현감 제수에 대한 감격과 군은에 대한 보답의지를 밝힌 부

41) 임주탁, 연시조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7면.

42) 남정희, 앞의 논문, 170면.

43) 전재강, 앞의 논문, 230면.



분(1~8수)을 보면, 1~3수는 군은에 대한 이재 개인의 감사와 감격이 제시되고, 이러한 화자의 감회는 ‘家屬親戚들이 님 恩惠 아라시렴’(4수), ‘그리던 家屬을어’(5수), ‘阿嬾님 내 피오려(6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 친척에게로 이어져 노모를 모시고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음을 모두 성운으로 돌림으로써 가족이나 집안으로 화자의 의식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재가 임금의 은혜로 목천현감에 부임한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이나 가문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상념을 읊거나 가문의식을 드러낸 부분에서도 이재 당대의 가족에 대한 내용이 먼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조들과 관련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재 당대 가족에 대한 내용은 형제(8수)와 자식에 대한 걱정(9수), 죽은 아내에 대한 생각(10수) 등 개인적인 걱정과 상념들이 표출되어 있어 화자의 심정이나 고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토로되어 있다. 하지만 이재는 이와 같은 사적인 심적토로에 머물지 않고 훌륭한 선조와 가문의 혁혁함을 제시하여 가문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우울한 심사에서 벗어나는 반전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재 앞에 놓여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은 ‘先人餘慶 계옵시니’(9수)에 나타나 있듯이 선조들의 음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 차 있었으며, 이런 이유에서 위대한 선조의 덕행이나 유훈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함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리학적 이념과 실천의 문제를 다룬 부분에서도 앞부분에서는 이재가 일생동안 탐구하고 고민했던 인물성동론(17수)과 심성수양의 중요성이나 방법론(18~20수)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성리학적 이념이나 수기의 자세를 언급한 것으로 개인에게 한정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1~28수까지는 가족이나 가문의 후손들에게 경계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심오

한 성리학적 이념이나 논쟁에서 벗어나 생활에 꼭 필요한 오륜(21수), 남녀유별(22수) 등 기본적인 윤리덕목들을 제시하여 실제 삶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철학적 이념이나 심성수양 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을 제시하기보다는 이제 가문의 후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구체적 덕목들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성리학적 이념과 실천을 다룬 이 부분에서도 먼저 이제 개인의 학문적 경향이나 수양자세 등을 먼저 밝히고 나서 자신의 가족이나 가문의 후손들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덕목들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의식세계가 가족이나 가문에게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목주잡가>는 이제 개인 차원의 감회나 현실대응방식을 먼저 밝히고 그것을 가족이나 가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세 부분에 걸쳐 전개되는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제의 의식세계 기저에 가족·가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관료로서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가문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료로서 정치적 포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었다는 창작동기와 관련지어 볼 때 이러한 화자의 의식 확장이 작품으로 형상화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목주잡가>는 ‘나’에서 출발하여 가족이나 가문으로 의식세계가 확장되고, 이것이 군은, 가문의식, 윤리적 실천 등 세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 가운데서 상당히 독특한 시상전개 방식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제는 18세기 향촌사대부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하여 창작했던 연시조의 갈래인 육가 계열을 수용하여 작품을 창작하지 않았다. 그가 기본적으로 경화사족과 구별되는 지방의 한미한 사대부였지만 당대의 향촌사대부들과는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배경이 동일하지 않았고, 학문적 집착에 따른 문화적 욕구도 달랐지만 특히 정치적 욕망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육가를 수용하여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안서우·권구·신지의 경우와는 정치적 지향이나 삶의 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또 <농가>를 창작한 위백규보다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며, <동유록>을 창작한 박순우보다 정치적 포부가 컸던 것이다. 이재는 젊은 시절부터 국문시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송순·장경세·정극인 등의 작품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50여 수의 시조를 한역화하는 작업도 병행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문시가와 시조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sup>44)</sup> 이것은 이재가 자신의 내면세계나 표현 욕구를 담기에는 시조 갈래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이재가 연시조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주된 경향이나 흐름을 의식하기보다는 연시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의 문제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자신의 생각이나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서술 방식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재의 <목주잡가>는 연시조 형식을 차용하여 자신의 삶과 입장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연시조 갈래를 수용하기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면서 독특한 전개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 V. 맺음말

이재 황윤석이 창작한 <목주잡가> 28수는 장편의 연시조이면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통일성이 부족하며 내용면에서 자전적인 성격이 강하여 연시조 가운데서도 독특한 작품이다. 또 이재의 정치·경제적 토대를 볼 때 호남지역의 향촌사대부였지만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이 18세기 전형적인 향촌사대부 연시조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에 의

---

44) 손찬식, 「이재 황윤석의 시조한역의 성격과 의미」, 『어문연구』제30집(어문연구학회, 1998), 215~220면.

문을 가지고 이 작품의 창작배경, 작품세계, 구성방식 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주잡가>가 창작된 배경을 황윤석 가문의 호남 정착과 그의 생애를 통해 고찰해 보았는데, 이 작품은 이재의 정계진출과 관직생활 및 그를 둘러싼 가문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재 가문은 호남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으로 칭송받는 명문이었지만 과거를 통한 정계진출의 길이 봉쇄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가문의 위상과 경제력에 대해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이재는 과거를 통한 정계진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하지만 실패하였고, 은일로 출사한 관직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목천현감을 제수받고 재임 기간에 <목주잡가>를 창작하였다. 이재는 이 시기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런 자신의 내면세계를 특별한 기교 없이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 황윤석의 <목주잡가>의 작품세계를 주요 내용이나 그의 의식세계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이재는 군은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선정을 다짐하는 내용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었고, 현실정치 상황에 고민과 갈등도 겪고 있었지만 노모를 봉양하고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흥분이 더 컸음을 살필 수 있었다. 선조들이 호남에 정착하게 된 배경과 가문의 빛나는 내력을 제시하고 후손들이 선조의 유훈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함으로써 가문의 식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호남지역 선비라는 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문의 위상도 높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성리학적 이념과 실천의 문제를 언급한 부분에서 자신이 일생동안 탐구했던 성리학적 세계관과 심성 수양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가족이나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윤리적 덕목들을 쉽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결국 <목주잡가>는 현실정치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개인적인 좌절감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주잡가>의 시상 전개에서 일정한 구성 방식이나 원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감회나 현재 상황, 신념이나 실천의지 등을 작품으로 형상화한 뒤 여기서 나아가 가족이나 가문으로 의식을 확장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었다. 즉 황윤석 개인에서 출발하여 가족이나 가문으로 시상이 확대되는 방식을 기본 패턴으로 삼고, 이 방식이 작품세계를 통해 드러났던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제는 <목주잡가>를 창작하면서 연시조 형식을 차용하여 자신의 삶과 입장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연시조를 계승하기보다는 거기에 담을 내용과 전달방식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이제가 18세기 향촌사대부들과는 다른 층위의 삶을 지향하였고, 작품을 창작할 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대응방식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목주잡가>를 통해 18세기 향촌사대부들의 연시조 내에서도 작가의 정치·사회적 기반이나 가치관, 의식세계의 차이에 따라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시기 연시조를 동태의 범주에서 다루기보다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제의 <목주잡가>를 연구하면서 그가 남긴 학문적 성과와 업적에 비해 지금까지 그의 관한 논의는 출발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이제 황윤석에 관한 깊이 있고 폭넓게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 <목주잡가>를 비롯한 그의 문학세계도 한층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 참고문헌

- 황윤석, 『頤齋亂稿』, 『頤齋續稿』, 『頤齋遺稿』
- 강신항·이종묵 외,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지식인의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김상진, 『조선중기 연시조의 연구』, 민속원, 1997.
- 김석희, 「존재 위백규의 생활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 남정희, 「18세기 京華士族의 시조 향유와 창작 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2.
- 노혜경, 『조선후기 수령행정의 실제-황윤석의 『이재난고』를 중심으로』, 해안, 2006.
- \_\_\_\_\_, 「황윤석의 『평해황씨세계』의 편찬 배경과 특징」, 『장서각』22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27~52면.
- 배우성, 「18세기 지방 지식인 황윤석과 지방 의식」, 『한국사연구』135집, 한국사연구회, 2006, 31~60면.
- 손찬식, 「이재 황윤석의 시조한역의 성격과 의미」, 『어문연구』제30집, 어문연구학회, 1998, 213~240면.
- 沈載完 編著, 『校本歷代時調全書』, 세종문화사, 1972.
- 유재영, 「이재 황윤석의 목주잡가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제7집, 한국언어문학회, 1970. 371~386면.
- 이강오, 「頤齋亂稿解題」, 『전라문화논총』,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1992, 141~190면.
- 이선아, 「영조대 정국 동향과 호남지식인 황윤석의 학맥과 관료생활」, 『지방사와 지방문화』제13집, 역사문화학회, 2010, 239~269면.
- \_\_\_\_\_, 「18세기 후반기 정국동향과 호남 향유 황윤석의 관직임면」, 『전북사학』제39집, 전북사학회, 2011), 163~187면.
- 이 옥, 「18세기 가학 전승과 문중서당」, 『국학연구』제18집, 한국국학진흥원, 2011, 129~155면.

- 이재연구소편, 『頤齋 黃胤錫의 학문과 사상』, 경인문화사, 2009.
- 이지양, 「호남선비 황윤석이 본 ‘호남차별’ 문제」, 『동양한문학연구』제27집, 동양한문학회, 2008, 77~100면.
- 임주탁, 「연시조의 발생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전재강, 「황윤석 시조의 교술적 성격과 작가의식」, 『시조학논총』, 한국시조학회, 2003, 207~234면.
- 정혜원, 「18세기 강호시조 연구」, 『인문과학연구』, 상명여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71~91면.
- 최강현, 「황윤석론」, 『속·고시조작가론』, 한국시조학회편, 백산출판사, 1990, 399~412면.
- 최삼룡·윤원호 외, 『이재 황윤석-영·정시대의 호남실학』, 민음사, 1994.
- 최재남, 「‘육가’의 수용과 전승에 관한 고찰」, 『관악어문연구』제12집, 1987, 319~347면.

<Abstract>

## The background of writing <Mokjujapga> and the world of its work

Youn, Jeong-Hwa\*

This thesis gives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background of writing <Mokjujapga>, a kind of traditional three verse stanza by written Hwang Yon Seok, connecting with the status of local noblemen, th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of the latter of the 18th.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Mokjujapga> and the consciousness of writer was heavily scrutinized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this poem. Also by looking into the structures of <Mokjujapga>, the universal characteristic of Yeonsijo was examined.

Surveying the life of Hwang Yoon seok and the settlement of his family in Ho-nam area, it can be revealed that <Mokjujapga> was closely concerned with his government official life and his family destiny. He wrote this work while he was serving as top leader of Mokcheon, Mokcheon-hyongam. He governed a town for the first time and he thought this period as a good chance to show his ability. He created <Mokjujapga> to arrange new turning point for his political path.

In <Mokjujapga>, Hwang Yoon Seok expressed the gratitude for the king, his will to reward king's favor and an overwhelming moment of appointment as Mokcheon-hyongam. He displayed his

---

\* Catholic University of Busan



agony over political state of that era, too.

He intended to boost honor to his family by presenting the settlement background of his family in Ho-nam area and tracing his brilliant family origin, especially by emphasizing that his descendants inherited and followed the teachings left by his ancestors. In other words his intends to regain his identity and to enhance the status of his family were implied in this work. Also he dealt with the idea and practice of Neo-Confucianism to which he was devoted for his whole life. Above all he put emphasis on a practicing Neo-Confucianism which was based on building an upright character, referring to the Neo-Confucianism view of the world and the attitude toward developing one's mind.

A certain way and principle in developing poetic concept could be found in <Mokjujappa>. Hwang Yoon Seok used the basic pattern which starts from himself and reaches his family or his ancestors. He developed three main concepts by using the ways repeatedly. It could be concluded that he had much interest in conveying meaning of poem rather than the form of Yeonsijo.

Key Words : Hwang Yoon seok, Mokjujappa, Local noblemen, Spirit of family, Neo-Confucianism view of the world

■ 논문접수 : 2012년 3월 15일

■ 심사완료 : 2012년 3월 31일

■ 게재확정 : 2012년 4월 10일